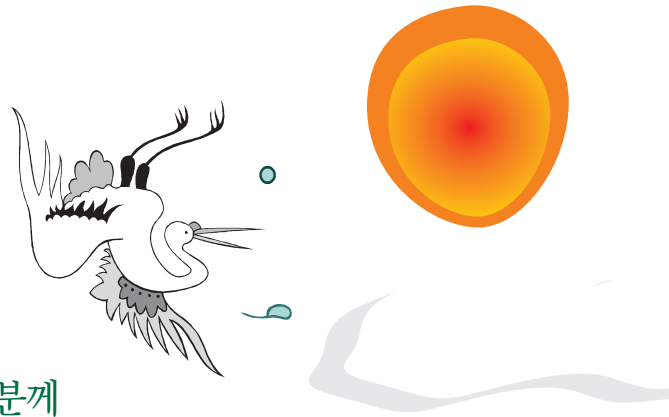


신/년/사

2007년 새해입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로 인해 회원 도서관과 도서관인 여러분께  
 늘 평안과 발전,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6년은 우리 도서관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오래 소망해 온 「도서관법」 개정은 새로운 도서관 문화 창출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께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보고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도서관계의 대응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노력으로 가시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도서관계의 한 해를 분주하게 만들었지요. 그토록 많은 일들을 겪어 오면서 우리 도서관계가 또 한 단계 성숙과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앞으로 도서관계가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게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연말에 공공도서관계가 당면한 개관시간 연장 문제라든가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 문제 등은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계가 풀어가야 할 중대한 과제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강력한 개혁 추진은 우리 도서관과 도서관인들에게 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서관 운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7년 새해는 이같은 지난 해의 기쁨과 과제를 넘어 새로운 날들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성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그만큼 이제는 도서관들도 자관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또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서관법」에서 이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서관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활동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 문화와 교육의 핵심시설이라는 그동안의 기본 역할을 넘어 우리 사회, 특히 지식정보시대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격차,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협회와 도서관계 모두가 함께 그같은 노력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2007년 한 해를 자기 개혁의 해로 만들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해 총회에서 회장 선출 과정에 협회 회원들의 의사를 보다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해 정기총회에서는 절차에 따라 회장과 이사를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새로운 조치는 우리 협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올 해 초에는 지난 해 말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협회 비전 작성을 위한 TF가 보다 구체적인 결과들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TF가 제시한 협회 개혁 방안들은 회원 여러분들의 검토를 거쳐 우리 협회와 도서관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협회 개혁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올해 4월 5일 발효되는 「도서관법」에 따라 새로운 도서관 정책 기구들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그 산하의 사무기구와 기획단(문화관광부 소속)이 구성되어 활동하게 될 것이며,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시·도 지역에 설치될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활동 등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도서관 시대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같은 정부 부분의 변화에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계의 자발적 개혁과 노력이 결합된다면 도서관의 새로운 시대를 도서관계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화는 늘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어떤 변화가 기회가 될 것인지 위기로 다가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변화를 만들

어 내는, 또는 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조직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를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야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진행되는 변화를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도서관 시대를 열어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이해하고 협력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혼자 힘의 힘이 아니라 도서관계 모두의 힘으로, 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협회는 그러한 연대의 틀이고, 함께 미래를 향한 항해를 떠나는 배입니다. 이 배를 튼실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회장인 저의 역할이자, 이 배의 주인인 회원 여러분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올 한 해 도서관계 내에 많은 변화가 있을 때 협회가 회원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이자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황금돼지의 해라고 해서 사람들의 기대가 큽니다. 우리도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 멋진 해로 만들어 갑시다. 개인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KCA)

한 상 완  
한국도서관협회장

